

치 아 종

치아종은 법랑질, 상아질, 백악질, 치수등의 치아조직으로 구성된 혼합 치성종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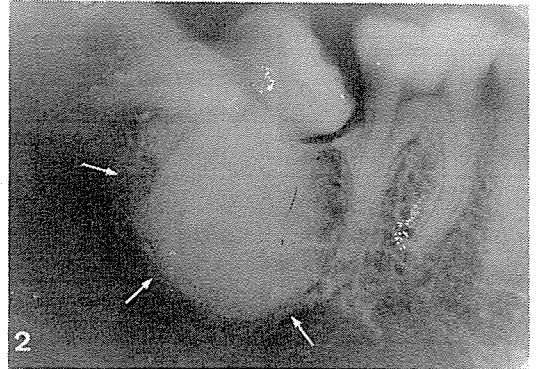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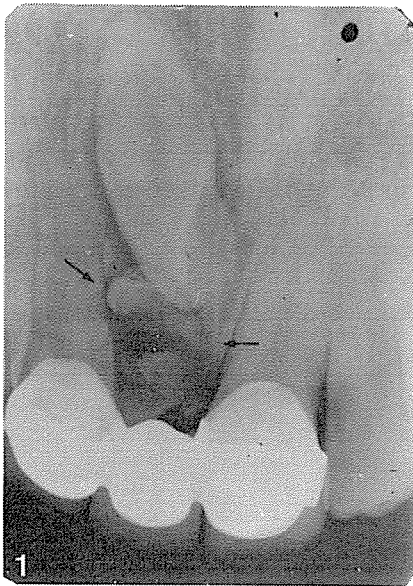
발생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외상 또는 감염이 원인이 될수 있다.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이 서서히 증식하며, 일정 크기에 이르면 더이상 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구치가 발육되는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육되어 자주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한다. 따라서 영구치 맹출이 지연될 경우, 치과의사는 반드시 방사선사진을 촬영해 보는것이 좋다.

치아종은 Compound type과 Complex type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정상치아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하며, 후자보다 더 자주 발생되고, 상악전치부위에 호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치아는 정상적인 법랑질, 상아

질, 백악질관계를 가지며, 대부분이 원추형의 단근 치이다. 치아수는 수개내지 수백개까지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치아수가 많을수록 크기는 작다. 후자는 석회화된 치아조직이 단지 불규칙한 덩어리를 형성하며, 초기 치아와도 형태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대부분 하악소구치와 대구치부위에 호발하며, 자주 미맹출치아의 치관과 치조정 사이에 발생되어 치아맹출을 방해할 수 있다.

방사선사진에서 Compound type(Fig. 1)은 치아로 인지될수 있는 불규칙한 radiopaque mass를 보이고 치아수가 적은 경우에는 개개치아가 radiolucent line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치아수가 많은 경우에는 radiopaque mass가 미맹출치아의 치관주위강을 나타내는 radiolucent line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상을 관찰할 수 있다. Complex type(Fig. 2)은 일반적으로 구형 또는 난원형의 radiopaque mass가 미맹출치아의 치관 가까운 부위에 존재하고 균일한 두께의 radiolucent line에 의하여 인접 골조직과 분리된다.



정우치과기공소

Jung Woo Dental Lab.



전화 765-0606, 743-663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5번지 (해암빌딩 5층)